

## § 교 회 목 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Pilgrim

##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 十 행 동 지 침 十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장로 임직 축하 메시지

##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달익 담임목사

우리 서울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열 분의 장로님들과 여섯 분의 안수집사님들을 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그의 사역을 대행할 신실한 일꾼들을 선택했고, 훈련과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오늘 드디어 임직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리신 은혜이며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내리시는 소명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가 더욱 풍성한 은혜로 이어지도록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위와 역할이 주어지지만, 또한 교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은 장로교회의 장로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사역의 충실함이 더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장로직은 대의정치의 원리를 따라 성도들의 대표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보다 성도들의 의견과 생각을 종합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장로직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와 여성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사역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는 언제나 섬김의 본을 보이는 실천적 섬김의 종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나 다른 분들에게는 모델처럼 여겨지고 상징적 존재로 인식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서울교회의 상징적인 대표자로,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세는 언제나 섬김의 무릎을 꿇고 사는 겸허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도들 앞에 무릎 꿇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것은 자기 영성 관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참여하는 교회 사역의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배, 기도, 봉헌, 섬김 사역 등 모든 영적 사역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인생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막중한 사명감과 뜨거운 가슴을 품고 임직을 받게 되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큰 은총이 임하고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복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15대 장로 임직 및 15대 집사 추가 임직

## - 오늘 찬양예배 사 -

오늘 찬양예배 시 15대 장로 임직 및 15대 집사 추가 임직 예식을 갖는다.

지난 5년간의 교회 분쟁으로 오랫동안 장로를 세우지 못했던 서울교회에 이제 주의 신실하신 일꾼들이 장로로 임직 받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된 일

꾼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부득이 11월 21일(주) 임직식에만 참석하지 못했던 여섯 명에 대한 추가 임직식도 같이 거행한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참석 바란다.

· 장로 임직자 :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집사 임직자 : 박용상 이용호 배효복 김태원  
박민서 김관섭1

 신임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글

## 15대 장로 임직자들에게

### 장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정수 원로장로

우리나라 초대교회 장로님들은 명실공히 헌신과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며 스스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고 신앙을 지키는데 있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가정과 자신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존경스러운 장로님들이 많으셨기에 한국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부흥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

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로가 명예가 되고 군림하고 대접받고 권리를 주장하는 계급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임직을 받으신 10분의 장로님들은 말씀과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사회와 일터에서 봉사와 나눔에 앞장서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본을 보이는 장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았을

을 명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신 것 같이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이 되라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 온 성도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앞장서고 협력하고 끌어주고 밀어주어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귀한 장로님들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 성숙의 시기를 향해 가는 서울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의 터전과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한국 교회에 새로운 모범을 보이는 내사랑 서울교회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노문환 원로장로

오늘 우리 서울교회 15대 장로로 임직하는 10분 장로님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년을 뒤로하고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이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잘 감당하게 하시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여러분들에게 빌 2:3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의 장로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시어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을 생각하며 충성스런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장로들이 되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마 25:21)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모든 장로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 기도하는 그대들이 서울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서문석 원로장로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먼저 축하드립니다. 혹여 쓴 말이 있더라도 쓴 것은 약 이치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으로 임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아직 아닌데 하시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 - 첫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항존직이 아니어도 봉사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느끼는 바나 본인의 책임의식과 역할 등에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신 직분, 늘 감사하고 마음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 - 둘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님을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말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 - 셋째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격려하

시기 바랍니다. 격려는 나보다 못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진실함이 담겨 있는 칭찬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더 큰 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 넷째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배려는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써 준다는 뜻입니다.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늘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하게 생각하며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 다섯째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하셔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 사랑, 격려, 배려, 온유의 다섯 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려면 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삶 속에서 지속적인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것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상기하며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대들이 바로 우리 서울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의 자랑감이 되는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장로 임직을 받으며

## 15대 장로 임직을 받으며 서울교회 제2의 도약을 위해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이강인 피택장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까 요리 빼고 조리 빼던 지난날 저의 모습을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분쟁이란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을 표출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교회 15대 장로로 임직을 받습니다.

우선 저는 담임목사님을 먼저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목회 정책을 전적으로 따르고 힘껏 돕겠습니다. 무엇보다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섬김의 지도력을 배우고 본받으므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원로장로님, 은퇴

장로님, 선배 장로님들을 받들고 그분들의 뜻이 희석되지 않도록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종윤 원로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 있는 바른 믿음을 심어주시고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며 서울교회를 성장시키셨지만 상대적으로 이 목사님의 몸은 지금 너무 쇠잔해졌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15대 장로 10명은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며 서울교회가 제2의 도약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있기까지 못난 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어머니 나옥녀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하나님과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차영도 피택장로

죄 많고 허물 많아 모든 것이 부족함 밖에 없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장로 임직 받게 되었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5년간 서울교회는 신실하지 못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큰 혼란에 휩싸이고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방에서 에워싸임을 당하였지만 우리를 도와줄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신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한 마디의 변명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신다며 하나님과 교회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는 은퇴장로님의 그 믿음을 닮고 싶습니다.

다.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신 장로님을 위시한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 제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회 분쟁을 교훈 삼아 저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행일치는 물론 신행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을 항상 돌아보겠습니다. 표리부동하지 않겠습니다. 분쟁 기간 중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온갖 고초와 시련을 마다하지 않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잘 섬기겠습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되는데 제가 맡은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는 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깨어 기도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장로 되겠습니다.



## 돌보고 살피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유충기 피택장로

한없이 부족한 저를 서울교회 장로로 임직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교회와 교인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배 장로님들께서 애써 닦아놓으신 길을 잘 따

르며 본받고, 교인들의 보이지 않는 아픈 곳을 살피고 돌보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의 삶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서은석 피택장로

먼저 한없이 부족한 저를 서울교회의 장로로 택하여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김미성 권사의 눈물의 기도과 정선이, 세준이의 고사리 같은 손의 기도 등 온 가족들을 구원의 동역자로 삼으시어 가족들의 기도 속에 다른 이들보다는 믿음의 시작이 늦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삶 가운데 특히 일터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는 그 무엇보다 귀하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받은 은혜가 넘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퇴 후 그동안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자 하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일꾼으로서의 피택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직분을 맡기에는 한없이 부족함을 알

기에 사의하려 하였으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의 도를 보이신 예수님,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기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신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 감사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어려운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김광태 피택장로

“임직” 사전적인 의미는 '직무를 맡기는 것'이나 장로훈련(교육) 과정에서 배운 의미는 '무거운 짐을 받음'이었습니다. '무거운'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공동의회를 거쳐 제직회에 이르러서도 장로의 직분이 주어진다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 장로님들의 면면을 보아왔을 때 제 자신이 그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찬양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는 모세의 간청에 자신 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따르라는 설교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것인가'라는 질문을 선임 장로님들로부터 받았을 때 어려운 자리에서 섬길 것

을 대답하였는데 그때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가 떠올랐고 될 수만 있다면 그 이야기 속 소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지방에 스스로 올리는 종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종은 하나님이 감동하였을 때 스스로 올린다고 전해져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곤 하였습니다. 어느 성탄절 이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기로 인해 종이 올리기를 바라며 많은 헌금과 기도를 하였지만 그 종은 꿈적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 가난하고 초라한 소년이 가진 것의 모두였던 한 끼 될 만한 것을 헌금하며 기도드릴 때 그 종은 스스로 힘차게 울렸습니다.”



##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노제현 피택장로

장로 임직에 맞아, 13살에 기독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신 이후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월에 대치동으로 이사 오면서 이종운 원로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족예배가 좋아 등록하고, 바른 신학에 입각한 여러 과정의 말씀과 신앙의 길을 배웠습니다. 아울러 원로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 및 믿음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했던 지난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선배님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게는 나타나지 않아... 그저 자랑스러운 서울교회의 일원으로 맨 마지막 자리에 끼워주신 것만으로 감읍할 따름인데,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으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배님들의 가르침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미숙하지만 지켜봐 주시고, 좋은 장로가 되도록 조언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충분히 쓰임 받아 녹아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피택장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편 19편 14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성품, 나이 등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들이밀어도 너무나 많이 부족한 저에게, 귀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감사드리면서도 죄송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또한 장로의 귀한 기회를 열어주신 서울교회 선·후배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할 일 많은 서울교회의 필요한 곳마다 충분히 쓰임 받아 녹아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격려하여 주시고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무릎으로, 발 벗고 술선수범하시던 선배님들

과 어머니의 신앙 전통에 따라 서울교회를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을 훈련하며 성숙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한 기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소서.
2. 하나님 편에서, 말씀에 기반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겸손하나 당당하게 하소서.
3. 충분히 쓰이게 하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4. 매일, 꿈에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입의 말·마음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소서.

##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김승록 피택장로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의 15대 장로로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피택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헤아리며 순종하려고 합니다.

피택 후 그동안 당회 교육과 노회 교육을 통해서 장로가 섬김을 받는 지위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자리임을 그리고 협력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자리임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 장로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을 본받아 부족한 저에게 주신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겸손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은퇴할 때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장로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장로 직분을 소중히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맡겨주시는 부서를 겸손하게 섬길 때 성도님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다시 세워질 서울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듯이.....



이민호 피택장로

구레네 시몬이 열렬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된 일들이 장로 피택 과정과 피택자 교육기간 내내 떠오르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더욱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며,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성실히 실행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듣기에 더욱 힘쓰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보편 타당하며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믿음 없는 사람도 서울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르게 분별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이어가고, 변화될 부분은 바르게 변화되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섬기는 자' 그리고 '조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윤걸 피택장로

서울교회 제15대 장로로 임직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지만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서울교회 선배 장로님들을 통해 “섬기는 자”, “조력하는 자”가 장로임을 배웠습니다. 원칙에 철저하고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두말 않는 것이 장로의 덕목이며 결정된 사항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장로의 의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유연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고 담임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것이 장로의 자세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

엇보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장로의 기본임을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본분을 잊지 않으며 서울교회를 위해 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시대에 맞는 교회,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자람이 되는 서울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고 지치지 않으며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대 신임 장로 부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후 1:12)

##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 교회1국 어린이들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빈 무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찬양대의 부활절 특별찬양 '골고다 언덕 감사하리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닫혔던 교회 출입구 이번 주부터 전체 개방

지난 5년여 우리 교회는 교회 분쟁과 분쟁 마무리 무렵 시작된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교회 출입구 전체를 개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편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교회 모든 출입구(1층 정문과 후문, 2층 정문)를 완전 개방하고 성도들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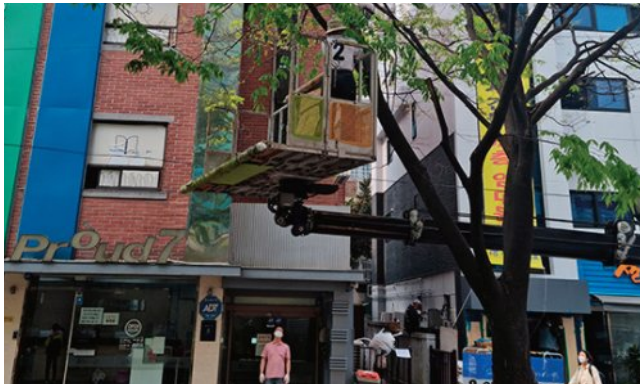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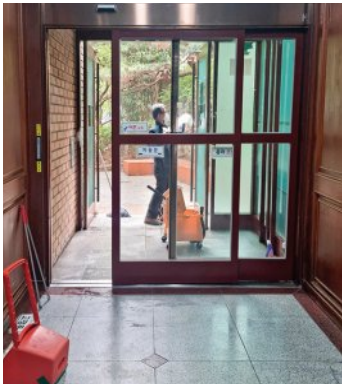
아울러 본당 좌석에 부착되어 있던 스티커도 제거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교회 내 여러 모임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준비가 되는대로 성경공부 모임 등 모든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도들에 대한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도 주위에 코로나 감염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당국의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는 것은 철저히 금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 회복 이후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던 모든 사역들이 제자리를 찾고 성도들도 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교회 출입구 전면 개방과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예배정상화를 위해 교회 정비하는 모습들

##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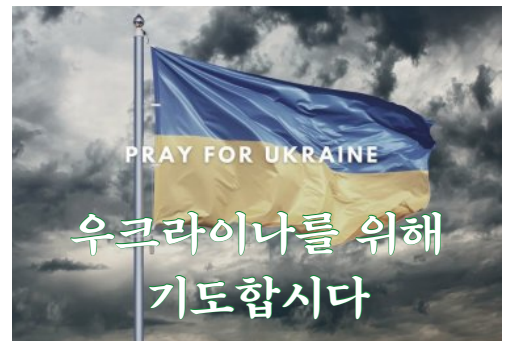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이상민 한지원 심종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옥준용 장하람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규 소령



###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4월 21일(목) 여호수아회 부활절 감사예배에서 설교했다. 4월 22일(금) 존경받는 나라만들기 국민운동 고문단회의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 떡 제공 : 이명희 성도(이응선 장로 손녀)  
고 이효상 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 전교인 성경읽기표

| 교구(부서): |    | 이름:      |    |         |    |
|---------|----|----------|----|---------|----|
| 일 자     | 요일 | 1년 1독    | 확인 | 1년2독    | 확인 |
| 4월25일   | 월  | 왕상 19-21 |    | 사 44-53 |    |
| 4월26일   | 화  | 왕상 22    |    | 사 54-66 |    |
| 4월27일   | 수  | 왕하 1-4   |    | 렘 1-6   |    |
| 4월28일   | 목  | 왕하 5-7   |    | 렘 7-13  |    |
| 4월29일   | 금  | 왕하 8-10  |    | 렘 14-20 |    |
| 4월30일   | 토  | 왕하 11-14 |    | 렘 21-27 |    |
| 5월1일    | 주일 | 왕하 15-17 |    | 렘 28-32 |    |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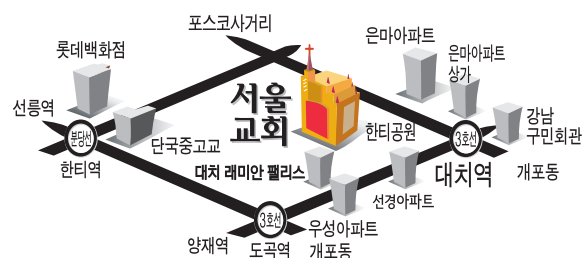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부활신앙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2. 안수 받은 신임 장로들과 중직자들이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섬기도록 성령충만의 은혜 내려 주소서.
3.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한반도에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향한 진전이 있게 하소서.

###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찬 양 예 배   | 오후 4시 30분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새 벽 기 도 회 |           | 오전 5시 30분(월 - 토) |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